

책으로 보는 북한 단청



조계종 신계사복원추진위 <단청무늬 자료집> 발간

북한에 위치한 사찰 및 일반 전통 건축물의 단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안화한 <단청무늬 자료집·사진>이 발간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조계종 신계사복원추진위(총재 지관)가 2005년 북한 조선문화보존사에서 출간된 자료의 판권을 얻어 남측 실정에 맞게 재편집·발간한 자료집에는 북측 33개 사찰 전각 60여동과 서원과 정자, 문루 등 일반건축물 37동의 각종 단청 문양이 종류별로 집성돼 있다.

조계종은 단청에 대한 개별 용어나 서술 및 편집 방식 등을 북측 원본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다만 남측 이용자를 위해 건축 용어는 남측 사용 용어로 변경하고 두음법칙 적용과 띄어쓰기 등을 수정했다.

자료집 구성은 건물부재 양 끝에 장식된 모루무늬와 무늬의 구성과 색채의 아름다움이 비단천에 비유된 비단무늬, 기둥 머리부분에 장식된 기둥무늬 등 건축물 구조명칭 중심으로 했다. 도해와 건축물별 색인을 두어 단청과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그간 북측 단청 자료는 2003년 평양 범문암 단청 작업 지원을 시작으로 열린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 2004년에는 <남북 단청·남북 단청문화교류 자료집>이, 2007년에는 금강산 신계사 단청공사 보고서인 <신계사 단청>이 발간됐었다.

이번 자료집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발맞



백색바탕에 화려한 용무늬 등이 대들보에 채색된 성불사 응진전 내부 단청.

춰 북측 문화보존지도국에서 실시된 단청 보수 사업의 결과물로 북측 단청 문양과 색채, 사용 용어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실사 자료라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분회 행정관(총무원 문화부)은 "남측 단청이 화려한데 비해 북측 단청은 색감이 옅은 특징이 있다. 북측은 옛것처럼 보이는 고색단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묘향산 보현사 화장암 벽체

삼존불 주변 관광명승화 계획도 마련 중

'백제의 미소' 43년 만에 햇빛으로 본다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충남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사진)이 43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서산시는 2007년 12월 2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서산 마애삼존불 주변정비 계획을 승인받아 서산 마애삼존불 보호각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애삼존불 보호각은 1965년 풍화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호각의 폐쇄형 구조 때문에 보호각 내부와 암벽에 습기가 유지돼 마애삼존불의 훼손을 촉진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애삼존불 보존환경을 조사했고 지난해 초 보호각의 지붕과 기둥 등 일부만이 남겨진 채 나머지는 철거돼 있었다.

보호각 철거를 마친 서산시는 지속적으로 마애삼존불 보존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삼존불 주변을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산시 김영균(문화관광과)씨는 "보호각 철거는 모두 마쳤다. 상반기 중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던 콘크리트 재질의 삼불교를 목조 흙예교로 교체하



고, 삼존불 보호를 위해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삼존불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햇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마애삼존불의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운문사 승가대 중국 칭화대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학인스님 해외 유학길 활짝 열려

전통 강원을 수료한 학인스님들의 해외 유학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는 최근 중국 칭화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협정으로 운문사에서 공부하는 학인스님, 졸업자는 물론 교수진까지도 칭화대 대학원 진학에 우선권을 부여받게 됐다. 운문사 강원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 300여명과 졸업생 1600명이 이번 협정의 수혜자가 됐다.

또 운문사와 중국 칭화대가 특



국제학술교류 협에서 체결 중인 운문사 승가대 학장 명성스님(사진왼쪽)과 칭메이량 칭화대 국제교류팀장

정연구에 공동참여 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국제학술교류대회를

열기로 했다. 1차 연구과제로는 경전 한역과정에 쓰인 한문 특성 및 한문 불전 정리와 번역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한편 운문사 승가대는 일본 하나조노 대학과도 실무 협의를 모두 마치고 학술교류협정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교계 관계자는 이번 중국 칭화대 및 일본 하나조노대의 교류협정 체결로 더 많은 학인스님들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1) 한국불교학회 www.ikabs.org

불교의 미래는 인재발사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서야 하며 불교가 교육으로 체계화돼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학이 바로서야 불교가 바로 섭니다. 불교관련 학회들의 활동상과 비전을 살펴 보며 앞으로 한국불교학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르네상스를 열어갈 학회

한국불교학회는 연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불교학계의 만능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불교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1973년 발기됐다. 1973년 11월 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11월 까지 47회에 걸쳐 학술발표를 열었다. 2008년 열리는 불교학계집대회의 주관단체기도 하다. 불교학계집대회는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열리는 한국불교의 미래 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범불교 연합학술대회다.

올해 불교학계집대회가 열리는 5월까지는 이평래 교수(충남대)가 이후로는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회장직을 맡는다. 교계 원로학자인 권기종, 김상범, 김영태, 목정배, 서

종범, 원의범, 이재창 박사 등 고문으로 대학교수 100여명과 연구원 50여명, 석·박사 200여명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찰과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전체 회원 수는 500여명 된다.

논문 발표는 회원에 한하며, 한국불교학회 회원은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자격으로 정회원은 3만원, 평생회원은 연 30만원 회비를 내면 된다.

행사는 매년 춘계와 추계 2회에 걸쳐 불교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학술발표대회 개최한다. 동계와 하계에는 일정 주제를 선정해 워크숍을 연다. 2007년 하계 워크숍 때는 도솔 김용욱(세명대 석좌교수)을 초청해 불은사 강당에서 학회행사로는 드물게 500명이 넘는

불자들이 모여 상황을 이루기도 했다.

학회지로는 <한국불교학>을 발간한다. 1975년 12월 창간돼 2007년 49권까지 나왔고 학진동재지 심의를 1차 패스했다.

한국불교학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이다. 2006년 불교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사단법인화 되어 후원금 납부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함은 물론 다양한 사업으로 학회운영의 신모델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김선근 차기 학회장은 "학자들의 교단 내 싱크탱크 활용, 영문지널 출간 등 불교학의 저변확대와 세계화를 통해 불교 르네상스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조동섭 기자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 신년하례법회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중도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8(2552)년 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시락리 218번지 구 낙동초등학교
문의 : 02)735-0501

종 정 : 벽송 (중정여경실장 : 도암)

원로원장 : 무진

원로원 : 해봉, 정향, 창해, 법선, 도선

총회회장 : 인담

총회부의장 : 지상, 원봉

총회의원 : 성해, 금봉, 운영, 법선, 도봉, 송담, 운학, 명관, 상기, 영산

총무원장 : 향운 (총무원장특보 : 지명, 사서실장 : 상호)

부원장 : 운오

교육원장 : 태운

상설원장 : 운학

비구니사원장 : 자성

총무부장 : 우석

재무부장 : 상기

사회부장 : 해공

호법부장 : 화운

법규원장 : 법선

문화원장 : 해일

복지원장 : 심상

비구니사원장 : 인명

교육부장 : 선정

문화부장 : 법경

포교부장 : 지수

복지부장 : 능인

호계원장 : 도천

포교원장 : 지광

전국비구회장 : 명관

의전부장 : 삼륜

연수부장 : 도공

의전실장 : 대련

호법국장 : 혜정

감찰국장 : 도현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교구총무원장 : 진산
경기교구총무원장 : 인담
강원교구총무원장 : 법선
충북교구총무원장 : 석암
충남대전교구총무원장 : 일륜
전북교구총무원장 : 운학
광주전남교구총무원장 : 마명
경북교구총무원장 : 도봉
경북남교구총무원장 : 영운
안동교구총무원장 : 명석
대구교구총무원장 : 불타
울산교구총무원장 : 금봉
부산교구총무원장 : 심상
경남교구총무원장 : 보각
서부경남교구총무원장 : 법산

대한불교 원효종 중정 벽송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마하보디교육원

제26차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안내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호스피스윤리 중에서 -



- 일 정** 2008년 1월 26일(토) ~ 2월 2일(토)
- 내 용** 35개 전문과목을 통한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 대 상** 스님,포교사 및 불교인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원서접수**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접수
- 원서마감** 2008년 1월 20일
- 교 육 비** 59만원 (교재비 별도, 학인스님 20% 할인)
- 문 의 처** [마하보디교육원] 052)264-1007 [정토마을] 043)298-2258 http://jungtoh.com

21세기 보디샤프트바의 길!

오직 경험을 통한 자각과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영성을 온전함으로 치유하고 고통에 직면한 중생들을 치유와 돌봄으로 함께 하는 여정... 호스피스전문가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마하보디교육원 정 토 마 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TEL 052-264-1007]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298-2258] http://jungtoh.com